

고흥군, SBS·행안부 고향사랑기부대상 ‘대상’ 수상

고향사랑기부대상 최고상인 ‘대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공영민 고흥군수와 고흥군 관계자, 향우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4일 서울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안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공영민 군수가 직접 참석해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모금 실적뿐만 아니라 답례품 운영, 기금사업과 지정기부사업, 기부자 예우, 홍보전략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고흥군은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현장실사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8천만 원도 확보했다.

고흥군은 2024년 9억 8천만 원이던 모금액을 2025년 35억 9천만 원으로 약 3.7배 끌어올려 전남 22개 시군 중 1위, 전국 7위를 기록했다.

군은 그동안 고흥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기금사업과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해 왔다./이유빈 기자

보성 청년마을, 9월 보성을 ‘음악과 초록’으로 물들인다

보성군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청년마을이 기획한 음악 공연과 차(茶)문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보성군에서는 ‘전체차(茶)랩(LAB)(회천면)’과 전남형 청년마을 ‘메모리&멜로디(득량면)’, ‘웨스트랜드(보성읍)’, ‘퍼스트팬권마을(별교읍)’ 총 4개 청년마을이 활동하고 있다. 11일 오후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남형 청년마을 ‘메모리&멜로디’가 주최하는 ‘2026 청년음악살롱-한 여름밤의 가곡과 아리아’가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청년 예술인 소프라노 이정은·김순영, 바리톤 이하석, 테너 국윤종, 피아니스트 김유상, 큐레이터 윤지현, Bella Voce 합창단 등이 참여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김윤성 기자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초빙작가제 운영

해남군은 백련재 문학의 집 작가 레지던시에 올해 처음 ‘초빙작가제’를 도입하고, 첫 초빙작가로 최두석 시인을 선정했다.

초빙작가제는 문학적 성취와 경륜을 갖춘 작가가 장기간 백련재에 머물며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련재 작가 레지던시는 2019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지난 8년간 입주작가들이 집필·구상한 작품 29권이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작가들이 해남의 역사와 장소를 작품에 담아 지역의 문화자산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두석 시인은 1980년 작품활동을 시작해 『대꽃』, 『임진강』, 『성에꽃』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리얼리즘 시를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해왔다. 오는 9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0개월간 백련재에 머물며 창작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지역사회 빛낸 ‘군민의 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진도군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진도군민의 상’을 수여한다.

군은 제51회 진도군민의 날을 맞아 올해 ‘진도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오는 9월 30일(수)까지 받는다.

추천 대상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헌신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 다른 군민의 귀감이 될 만한 개인이나 단체다.

시상 분야는 ▲공공복리 ▲교육, 체육 ▲관광, 문화예술 ▲복지, 환경 ▲지역개발, 총 5개 부문이며, 부문별 1명(단체일 경우 1개 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10월 중에 심사를 진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심의한 뒤 ‘군민의 상심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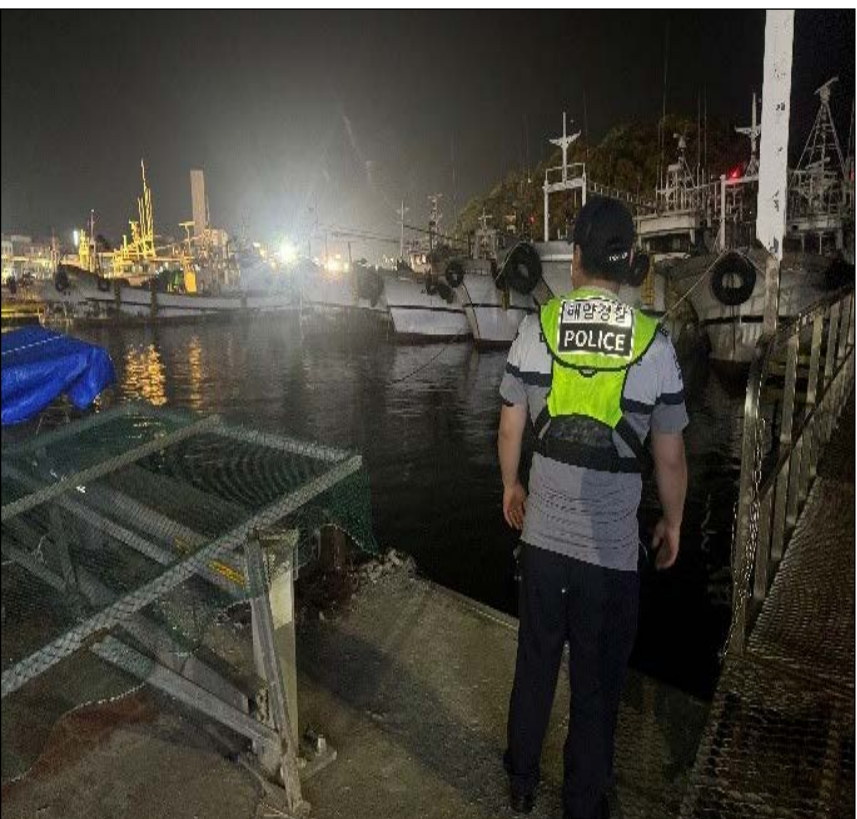
장흥군은 4일 장흥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유치면 일원에 추진되는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관계기관, 행정기관이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우선 유치면 대천리 일원 49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제24호 태풍 ‘크로반’ 대비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9월 3일부터 6일까지... 방파제·갯바위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 강화



태풍 대비 순찰 중인 완도해경의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제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관내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4일 새벽부터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예상되고 높은 파도와 거센 너울이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연안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완도해경은 방파제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객과 관광객의 위험구역 출입을 사전에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해 전광판과 안전 안내방송, 알람톡 등을 활용한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한다. /이가영 기자

또한 V-PASS와 CCTV를 활용해 출항·이동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어선의 조기 피함과 출항·조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유도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태풍의 간접 영향만으로도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발생해 해안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상악화 시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례군 로컬마켓